

울산 거주 노인의 취업유무와 가계경제생활

The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Economic Life of the Elderly in Ulsan

서정희 · 허은정*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Jung-Hee Seo · Eunjeong Huh

D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elderly(i.e., whether the elderly is employed or not) in Ulsan, 2)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household economic life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old people, and 3) only for the employed old people, to compare the monthly earnings and job satisfaction by the work time of per day and by the regular employee or temporary employee. For this study, semi-structural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00 old people in Ulsan, in September, 2006. The results indicated that only 25% of the respondents were employed,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elderly was related to sex,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household composition, number of dwelling persons, and number of children. For household economic life, employed old people had higher household income and monthly allowances than unemployed old people, while they spent more on clothing, but less on food than unemployed old people. Regular old employees had higher monthly earnings and job satisfaction than temporary old employees. And the old employees working for more than 8 hours per day had higher monthly earnings than those working for less than 8 hour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Key Words : Employment Status, Household Economic Life, The Elderly in Ulsan

I. 서론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2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32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김영신 외, 2007).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적 측면이나 개인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노동력이 있는 젊은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나 연금부담에 대한 세대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의료비,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등 결국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노인의 취업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취업은 가계의 근로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의 활력소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노인의 직업생활 참여는 미래에 닥칠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고 경제,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재정경제부, 2004). 그러므로 노인의 취업은 생산적인 복지개념으로서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Eunjeong Huh
Tel: (052) 259-1262, Fax: (052) 259-2888
E-mail: ejhuh@ulsan.ac.kr

노인의 취업에 대해 연구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연구들이 노인 인력의 활용방안, 현행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대안 마련,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 정책 등과 같은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동배 외, 2004; 김학주, 우경숙, 2004; 방하남 외, 2005; 장지연 외, 2004), 노인의 취업을 다룬 실증연구(전지원, 박미석, 2006a; 2006b)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노인의 취업은 노인가계에 근로소득을 추가함에 따라 가계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를 다룬 연구들(김연정, 1998; 성영애, 양세정, 1997; 양세정, 성영애, 2001; 이윤금, 1999; 임정빈, 김윤희, 2000; 정순희, 김현정, 2002; Moehrl, 1990; Rubin and Nieswiadomy, 1994)은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노인이 취업한 가계가 취업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경제상태가 좋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의 취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유무 및 취업관련 실태를 조사하였고, 노인의 취업이 가계경제생활에 기여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인이 취업한 가계와 취업하지 않은 가계의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취업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고용형태와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월평균 급여와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이나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취업

노인복지 실현의 방법으로서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배경에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이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대사회는 국가중심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복지생산의 주체가 되고 복지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인 생산적 복지(Esping-Andersen, 1996)를 지향한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이

다(재정경제부, 1999). 즉, 노인 복지정책도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가 전담해야하는 복지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여정부는 노인복지 4대 핵심국정과제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선정하였고, 2006년의 경우 8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현 정부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2008년 올해 문화재 지킴이 사업 등 공익형 사업을 통해 4만 6천여개, 소외계층 도우미 사업에 4만 1천여개, 간병인 사업 등을 통해 1만 1700여개 등 모두 11만 7천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008).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 및 인력활용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2002년 고령화에 대한 범지구적 대책을 천명한 UN 마드리드 선언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2). 노인의 생산성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강조한 UN 마드리드 선언은 노인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활동 참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노인을 무능하고 의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생산적인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긍정적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는 노인 자신의 삶에서 가치와 역할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사회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토록 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의 취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노인 인력의 활용방안 및 활성화, 현행 정책과 제도, 전달체계 분석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김동배 외(2004)는 노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을 연구하였고, 김학주, 우경숙(2004)은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밝혔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장지연 외, 2004; 방하남 외, 2005)도 이루어졌다.

윤순덕(2004)은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였는데, 여기서 노인의 취업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가족 및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가사활동, 시민참여 활동 등 비경제적인 활동까지를 포함한 생산적 활동을 분석하였다. 전지원, 박미석(2006a)은 노인의 직업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통하여 전직종을 대상으로 노인의 직업생활 현황과 직업활동 지원 정책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2. 노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학주, 우경숙(2004)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수가 적을수록 노인의 재취업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어수봉(1994)도 여성노인에 비하여 남성노인이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을 조사한 김진욱(1998)과 우리나라 실업자의 특성을 분석한 라윤정(1993)의 연구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Howland와 Peterson(1988)은 연령, 교육수준, 성, 기혼여부 등의 변수들이 노인의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수행능력과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들(금재호, 1992; 어수봉, 1994; Wadworth, 1999)도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원수, 결혼상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노인의 취업과 가계 경제생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노인가계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단순히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으며(문숙재 외, 1996; 성영애, 양세정, 1997; 임정민, 김윤희, 2000), 대부분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수립의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행해졌다(김순미, 1998; 문숙재, 김순미, 1997; 여윤경, 1999).

취업여부에 따라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패턴을 비교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Moehrl(1990)은 저소득층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에서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25%나 더 큰 소비지출을 보였다고 하였다. Rubin과 Nieswaidomy(1994)도 50세 이상의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취업가계와 은퇴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소비지출패턴의 차이점을 규명한 결과, 노인의 취업여부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Weagley와 Huh(2004)는 1995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가지고 가구주의 은퇴가 가계의 레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은퇴한 가계,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의 대리변수로서 가계의 총지출이 증가할수록 가계의 레저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정(1998)은 1994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은 취업노인가계보다 적으나 소비지출수준은 비슷하며, 자산은 은퇴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금(1999)은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간에 가정내 식료품비의 지출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식비 지출은 취업노인가계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 성영애(2001)는 우리나라 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로 나누고, 노인가계를 다시 가구주의 취업유무에 따라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로 구분하여 각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노인가계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라 경제구조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에 있어서 비노인가계와 유사한 경제상태를 보인 반면, 비취업 노인가계는 취약한 경제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희, 김현정(2002)은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하였는데,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하여 총소득, 1인당 소득, 요구 대비 소득, 총지출, 1인당 지출 요구 대비 지출은 더 많았고, 순자산, 소득대비 순자산 비율, 지출대비 순자산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노인가계에서 가구주의 취업유무는 가계의 경제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인의 취업유무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세대구성, 현재 동거 가족원수, 자녀수)와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가계 경제생활(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용돈 및 의생활비, 식생활비, 여가비 지출)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취업노인의 고용형태(정규직 혹은 임시직)에 따라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취업노인의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6년 울산발전연구원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노인건강증진방안' 조사 자료 중 노인의 취업과 관련된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래 이 자료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식이요법, 운동,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여가활동, 노인복지시설, 취업실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대한 많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선행연구를 기초로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현재 동거 가족원수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 결혼상태, 세대구성, 자녀수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 경제생활 변수는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용돈 및 의생활비, 식생활비, 여가비 지출로만 구성되어, 가계의 소득과 소비지출 전반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3. 조사대상 및 표본추출

노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의 분류는 연구목적에 따라 55세에서 65세 사이를 기점으로 나누는 경향을 나타낸다.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령자 고용촉진법은 55세를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양세정, 성영애, 2001). 본 연구는 노인의 취업유무(노인이 현재 취업한 가계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계의 비교를 포함)와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노인을 55세 이상의 연령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질문지 구성에 앞서 먼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5-69세 사이의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목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힌 후 그들의 동의를 구한 뒤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al questionnaire)를 가지고 1:1 심층면접(depth interview)을 하였다. 또한 현재 울산에서 노인취업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6년 8월 7일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유곡노인

정을 방문하여 70-80대 사이의 노인 8명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과 FGI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조사의 질문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자들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현재 55세 이상인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훈련된 면접원이 인터뷰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울산광역시 5개구에 각각 100명씩 표집 인원을 강제 할당을 시킨 후 단순무작위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및 취업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t검정을 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노인 500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의 경우, 60대가 43.9%, 70대가 36.3%로 60~70대의 노인이 전체의 2/3(80.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노인 54.6%, 남자노인 45.4%로 여자노인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종교는 불교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무교는 29.7%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 정도 높았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중학교 졸업(26.4%), 무학(20.0%), 고등학교 졸업(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3.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은 사별(32.5%)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수는 2명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6명 이상은 6.0%로 가장 낮았다. 자녀의 수는 3명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2명 이하와 4명이 각각 23.8%였다. 즉 자녀의 수는 2~4명이 73.4%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세대구성의 경우 부부만 생활하는 세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본인세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37.2%)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혼자 사는 경우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류			분류				
	N	%		N	%		
연령	55세~59세	79	15.8	현재 동거 가족수 (본인 포함)	1명	78	15.6
	60대	219	43.9		2명	199	39.8
	70대	181	36.3		3명	80	16.0
	80대	20	4.0		4명	40	8.0
	계	499	100.0		5명	73	14.6
			6명 이상		30	6.0	
성별	남성	227	45.4	계	500	100.0	
	여성	273	54.6	자녀수	0명	11	2.2
	계	500	100.0		2명 이하	119	23.8
교육 수준	무학	100	20.0		3명	129	25.8
	초졸	155	31.0		4명	119	23.8
	중졸	132	26.4		5명	65	13.0
	고졸	98	19.6		6명 이상	57	11.4
	전문대졸 이상	15	3.0		계	500	100.0
종교	없다	148	29.7	세대 구성	본인세대+자녀+손주	38	7.6
	불교	276	55.3		본인세대+자녀	186	37.2
	기독교	51	10.2		부부만	187	37.4
	천주교	22	4.4		혼자	71	14.2
	기타	2	0.4		기타	18	3.6
	계	499	100.0		계	500	100.0
결혼 상태	배우자있음	315	64.3	주택 소유 형태	자가	432	86.6
	사별	162	33.1		전세	29	5.8
	이혼	13	2.7		월세, 기타	38	7.6
	계	490	100.0		계	499	100.0

도 14.2%나 되었다. 주택소유형태의 경우는 자가 비율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경제적 특성

<표 2>는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27.8%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이 26.1%, 100~200만원 미만이 20.0%의 순이었다. 즉 300만원 미만의 가계소득이 73.9%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용돈의 경우, 10~20만원 미만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20~30만원 미만(24.7%)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0만원 이상의 용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4.4%에 불과했다. 용돈의 주요 공급원으로

<표 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분류			분류				
	N	%		N	%		
월평균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130	26.1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106	21.4
	100~200만원 미만	100	20.0		10~20만원 미만	186	37.6
	200~300만원 미만	139	27.8		20~30만원 미만	122	24.7
	300~400만원 미만	82	16.5		30~40만원 미만	59	11.9
	400~500만원 미만	29	5.8		40~50만원 미만	6	1.2
	500만원 이상	19	3.8		50만원 이상	16	3.2
계	499	100.0	계		495	100.0	
용돈의 주요 공급원	본인 및 배우자	296	59.7				
	아들	169	34.1				
	딸	21	4.2				
	기타	10	2.0				
계	496	100.0					

는 본인 및 배우자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들에게 받는 사람이 34.1%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과 배우자들이 스스로 용돈을 해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과거 직업과 현재 취업유무

<표 3>은 조사대상자들의 과거 직업과 현재의 취업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분류 중에 주부가 23.1%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현재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으로 분류하였다. 과거 직업에 있어서는 농/임/어/축산업이 21.0%로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17.1%), 생산직(11.0%)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직업은 모두 7%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농업, 축산업 및 임업의 경우 울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많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의 경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취업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직업이 없는 경우가 75.4%로 직업이

있는 경우인 24.6%보다 더 높게 나타나 많은 수의 노인들이 현재 직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취업노인의 고용실태

<표 4>는 조사대상 노인들 중에서 취업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형태, 월평균 급여, 근무시간, 직업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취업한 노인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직 중에서도 시간제(13.1%) 보다 종일제(33.6%)에 근무하는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평균 급여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00~200만원 미만(33.1%)으로 나타나서 취업노인의 75%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취업노인의 11.6%에 불과하였다. 1일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8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

<표 3> 과거 직업과 현재 취업상태

과거 직업			현재 취업상태		
분류	N	%	분류	N	%
농/임/어/축산업	103	21.0	현재 미취업	376	75.4
자영업	84	17.1	취업 취업	123	24.6
판매업	27	5.5	상태 계	499	100.0
영업직	9	1.8			
기술직	34	6.9			
사무직	28	5.7			
경영·관리직	11	2.2			
전문직	12	2.5			
생산직	54	11.0			
주부(미취업에 분류)	113	23.1			
기타	15	3.1			
계	490	100.0			

<표 4> 취업노인의 고용형태 및 실태

고용 형태			현재 직업 만족도		
분류	N	%	분류	N	%
정규직	60	49.2	1~7시간	14	11.6
임시직(시간제)	16	13.1	1일 8시간	40	33.1
임시직(종일제)	41	33.6	근무 9~12시간	60	49.5
기타	5	4.1	시간 13시간 이상	7	5.8
계	122	100.0	계	121	100.0
100만원 미만	50	41.3	매우 만족	3	2.5
100 ~ 200만원 미만	40	33.1	만족	44	36.4
200 ~ 300만원 미만	17	14.0	보통	55	45.5
300만원 이상	14	11.6	불만족	17	14.0
계	121	100.0	매우 불만족	2	1.7
			계	121	100.0

과, 9~12시간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시간 근무는 약 33%였으며, 13시간 이상도 5.8%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36.4%로 나타나 불만족하는 노인보다 만족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에서도 오랜 시간 일하고 월급은 70-80만원 받아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5) 취업희망 여부 및 구직 관련사항

<표 5>는 조사대상자들의 취업희망 여부와 구직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대상들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23.4%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6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심층 면접하였는데, 자신에게 마땅한 직업을 찾기가 힘들거나 혹은 집안 일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일의 양과 시간대(약 3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임금수준(31%), 과거 직업과의 관련성(17%), 집과의 거리(1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밝힌 희망하는 퇴직시점은 66~70세로 응답한 비율이 약 41%로 가장 많았고 71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약 31%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경우, 소일거리로 응답한 비율이 약 48%로 가장 많았고 주 5일이상 근무하는 종일제 근무(17%)보다는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27%)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연구 결과

1.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취업유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노인들의 취업유무와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들의 취업 유무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취업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 남성노인이 더 많으며, 비취업자의 경우는 여성노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학주, 우경숙(2004) 및 어수봉(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도 노인의 취업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연령이 55~64세 집단은 취업한 경우가 69.9%로 많은 반면, 65세-74세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은 비취업자가 많았다. 김학주, 우경숙(2004) 및 Howland와 Peterson(1988)의 연구결과에서도 젊은 노인들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보다 취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도 취업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취업노인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가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학교 졸업집단(32.3%), 고등학교 이상 졸업집단(27.6%)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단순노동, 농림수산업 등 고학력자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저학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학주, 우경숙(2004), 김진옥(1998), 라윤정(1993)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취업자의 경우 초등학교가 30.3%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세 집단은 비슷하였다.

노인들의 결혼상태 또한 취업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취업한 노인의 경우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표 5> 취업희망여부 및 구직 관련사항

분류	N	%	분류	N	%		
취업 희망 여부	그렇다	100	23.4	희망하는 퇴직 시점	65세 이하	136	27.9
	보통이다	42	9.8		66~70세	198	40.7
	아니다	285	66.7		71세 이상	153	31.4
계	427	100.0	계	487	100.0		
구직시 우선 고려 기준	임금수준	138	30.7	희망하는 근무 형태	시간제 근무	124	27.0
	과거 직업 및 경험과의 관련성	78	17.4		종일제 근무	79	17.2
	일의 양과 시간대	160	35.6		소일거리	218	47.5
	직업활동의 직업여부	14	3.1		자영업·자원봉사	38	8.2
	집과의 거리	59	13.1		계	459	100.0
	계	449	100.0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취업유무간의 교차분석

구분	취업		미취업		X ²
	N	(%)	N	(%)	
성별	남성	81 (65.9)	146 (38.8)		27.296***
	여성	42 (34.1)	230 (61.2)		
	계	123 (100.0)	376 (100.0)		
연령	55~64세	85 (69.7)	93 (24.7)		85.568***
	65~74세	32 (26.2)	177 (47.1)		
	75세 이상	5 (4.1)	106 (28.2)		
	계	122 (100.0)	376 (100.0)		
교육수준	무학	8 (6.5)	91 (24.2)		18.975***
	초졸	41 (33.3)	114 (30.3)		
	중졸	40 (32.5)	92 (24.5)		
	고졸 이상	34 (27.6)	79 (21.0)		
	계	123 (100.0)	376 (100.0)		
종교	무교	43 (35.0)	105 (28.0)		2.819
	불교	66 (53.7)	211 (56.3)		
	기독교	14 (11.4)	59 (15.7)		
	계	123 (100.0)	375 (100.0)		
결혼상태	배우자있음	99 (83.2)	216 (58.4)		24.189***
	배우자없음	20 (16.8)	154 (41.6)		
	계	119 (100.0)	370 (100.0)		
세대구성	본인세대와 자녀	48 (39.0)	137 (36.4)		9.411**
	부부만	56 (45.5)	131 (34.8)		
	기타	19 (15.4)	108 (28.7)		
	계	123 (100.0)	376 (100.0)		
현재 동거 가족수 (본인포함)	1~2명	73 (59.3)	204 (54.3)		25.888***
	3~4명	43 (35.0)	77 (20.5)		
	5명 이상	7 (5.7)	95 (25.3)		
	계	123 (100.0)	376 (100.0)		
자녀수	2명 이하	53 (43.1)	77 (20.5)		31.314***
	3명	31 (25.2)	98 (26.1)		
	4명	26 (21.1)	93 (24.7)		
	5명 이상	13 (10.6)	108 (28.7)		
	계	123 (100.0)	376 (100.0)		

p<.01, * p<.001

에 배우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약간 더 많았다.

세대구성도 노인의 취업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취업한 경우에는 부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본인세대와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그러나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세대와 자녀로 구성된 집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부부만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생계를 위하여 취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동거하는 가족수도 취업유무와 의미있는 관련을 보였다. 노인이 취업한 경우 현재 동거 가족수가 1-2명인 집단이 5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원수가 3-4명인 집단이었다. 노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 가족수가 1-2명이 집단이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원수가 5명 이상인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수도 노인의 취업유무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는데, 취업한 경우에는 자녀수가 2명 이하인 집단이 43.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의 수가 5명 이상인 집단이 28.7%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집단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의 취업유무와 가계 경제생활

<표 7>은 노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가계 경제생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월평균 가계소득과 월평균 용돈, 의생활비 지출 및 식생활비 지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여가비 지출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노인가계의 경우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고 이들이 취업한 이유도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취업가계와 취업하지 않은 가계에 있어 여가비 지출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서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쇠퇴와 건강 등의 이유로 독서, 가벼운 운동, 걷기 등의 여가활동을 많이 편인데, 이러한 유형의 여가활동은 금전적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예비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에서 한 노인은 한양대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울산의 대기업에 다니다가 현재는 00대학교에서 수위를 하고 있는데, 그는 직업의 특성상 힘들고 자기시간도 부족해서 집에서 쉬거나 TV 시청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현재 노인이 취업을 한 경우는 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월평균 가계소득과 월평균 용돈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하여 총소득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연정, 1998; 양

세정, 성영애, 2001; 정순희, 김현정, 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의생활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취업을 한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생활비 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취업과 관련된 피복/신발비 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연정, 1998; 양세정, 성영애, 2001). 식생활비 지출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노인집단이 취업한 노인집단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식료품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윤금(1999)의 연구에서는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가정내 식료품 및 외식비 모두에 있어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식료품비와 외식비를 분리하여 조사하지 않고 식생활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취업한 노인의 경우 식사를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3. 취업노인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

<표 8>은 현재 취업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두 집단으로 나눈 후, 고용형태에 따라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한 노인 중에서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보다 월평균 급여수준이 훨씬 높게 나

<표 7> 취업유무와 가계 경제생활 요인 간의 t-검증

(단위: 만원)

	취업		미취업		t값
	m	SD	m	SD	
월평균 가계소득	240.80	161.70	182.60	121.79	-3.654***
월평균 용돈	20.27	14.85	14.58	11.13	-4.508***
의생활비 지출	21.26	20.60	16.58	15.31	-2.300*
식생활비 지출	45.78	25.43	52.69	39.21	2.256*
여가비 지출	19.87	18.49	19.62	17.77	-0.133

* p<.05, ** p<.01, *** p<.001

<표 8> 고용형태와 월평균 급여수준, 직업만족도 간의 t-검증

	정규직		비정규직		t값
	m	SD	m	SD	
월평균 급여수준	285.63	176.18	199.02	134.51	3.043**
직업 만족도	3.37	0.74	3.10	0.81	1.935*

* p<.05, ** p<.01

<표 9> 1일 근무시간과 월평균 급여수준, 직업만족도 간의 t-검증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t값
	m	SD	m	SD	
월평균 급여수준	70.71	75.18	150.66	101.79	-2.834**
직업 만족도	2.92	1.04	2.74	0.76	0.804

** p < .01

타났을 뿐만 아니라, 직업만족도 또한 정규직에 종사하는 집단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4. 취업노인의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

<표 9>는 취업노인을 대상으로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급여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만족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취업유무와 취업관련 실태를 조사하였고, 취업유무에 따라 몇 가지 측면에서 가계 경제생활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취업노인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와 1일 근무시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직업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노인들은 현재 약 25%만이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를 제외하고 농/임/어/축산업이 가장 높게 나왔다. 취업노인들의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이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9~12시간이 약 50%를 차지하였고, 월평균 급여는 41%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현재 직업 만족도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46%)이 제일 많았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39%)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16%)보다 많았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취업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32%)보다 희망하지 않는 사람(67%)이 더 많았는데 이러한 주요 원인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힘들거나 혹은 집안일을 담당해야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근무형태로는 소일거리(48%), 시간제 근무(27%), 종일제 근무(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6%), 임금수준(31%)으로 조사되었고, 희망퇴직 시점은 66세 이상으로 답한 사람이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노인들의 취업유무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이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노인의 취업유무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변수 즉,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현재 배우자유무, 현재 동거하는 가족 수, 자녀수와 의미 있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들의 취업유무에 따라 몇 가지 측면에서 가계 경제생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취업한 노인은 취업하지 않은 노인보다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용돈 및 의생활비 지출이 높은 반면, 식생활비 지출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비 지출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취업노인의 고용형태에 따라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보다 월평균 급여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직업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노인의 1일 근무시간에 따른 월평균 급여수준과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급여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직업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조사대상인 울산광역시 노인들 중 약 4분의 1만이 현재 취업하고 있고, 이들의 고용상태는 비정규직이 절반가량 되며, 1일 근무시간이나 월평균 급여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직업 만족도는 보통 혹은 만족하는 정도로 나타나서 현재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을 번다는 사실

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노인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을 잘 인식해서인지 취업을 원하는 노인보다는 원하지 않는 노인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노인들의 많은 수가 희망퇴직 시점을 66세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대답은 실제로 많은 수의 노인들이 자신에게 적당한 일이 주어진다면 일을 계속하고 싶어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울산시에서는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취업연계시설의 증설과 고령자를 위한 전문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울산시에 소재한 고령자 취업연계시설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노인의 취업은 노인가계의 경제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에 종사한 경우 비정규직에 종사한 노인보다 월평균 급여수준이나 직업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특히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의 한 계 때문에 노인 취업유무에 따른 가계 경제생활의 차이를 가계소득, 자산상태, 가계 소비지출의 전반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몇 가지 부분적인 측면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취업이 노인가계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적 복지에 기여함을 암시할 뿐 노인취업이 이들의 심리적 만족감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노인취업이 노인복지 실현에 기여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제어 : 노인의 취업유무, 가계경제생활

참 고 문 헌

- 김재호 (1997)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김동배, 이윤화, 안인경 (2004) 노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107-127.
- 김순미 (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연정 (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김영신, 서정희, 송인숙, 이은희, 제미경 (2007) 소비자와 시장 환경. 시그마프레스
- 김진옥 (1998)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학주, 우경숙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97-110.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008, 4.1) 한국정책방송.
- 라윤정 (1993) 우리나라 실업자의 특성 분석: 199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 김순미 (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6.
-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 (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방하남, 신동균, 김동현, 신현구 (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
- 성영애, 양세정 (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8.
- 양세정, 성영애 (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어수봉 (1994) 고용관련법의 경제학-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의 법제도화의 제문제, 산업관계연구, 4, 15-28.
- 여윤경 (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59.
- 윤순덕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희열 (1996) 재취업 노인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금 (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73-86.
- 임정빈, 김윤희 (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 소비지출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 장지연, 김대일, 신동균, 조준모, 조용만, 김정한 (2004)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한국노동연구원.
- 재정경제부 (1999) 경제백서. 재정경제부.
- 전지원, 박미석 (2006a) 노인의 직업활동 활성화 방안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7), 21-39.
- 전지원, 박미석 (2006b)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직업만족도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인과모형 분석. 한국노년학, 26(3), 521-545.
- 정순희, 김현정 (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13-122.
- Esping-Anderson, G (ed.)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 National Adaption Global Economics*, London, Sage.
- Howland, M, Peterson, GE (1988) Labor Market Conditions and the Reemployment of Displaced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2(1), 109-122.
- Moehrle, T (1990) Expenditure Patterns of the Elderly: Workers and Non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3(5), 34-41.
- Nelson-Horchler (1987) The Trouble with Temps. *Industry Week*(Dec. 14), 53-57.
- Rubin, R, Nieswaidomy, M (1994)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onretired Person. *Monthly Labor Review*, April, 10-21.
- Wadsworth, J (1993) Unemployment Benefits and Activity. *Oxford Bulletin and Statistics*, 55(1), 1-24.
- Weagley, R, Huh, E (2004) The Impact of Retirement on Household Leisure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8(2), 262-281.

(2008. 7. 16 접수; 2008. 9. 30 채택)